

28일 프로야구 개막...KIA 김기태 감독 출사표

“욕 먹어도 ‘닥공 야구’ 하겠다”

〈닥치고 공격〉



“144경기 치를 준비 잘해...시범경기에서 희망 봤다
LG→SK→KT→NC와 초반 14경기 1차 승부처
신중길 공백 최소화 노력...김병현·김진우 2군 등판”

“실패의 책임은 감독의 몫이다. 과감한 플레이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야구를 선보이겠다.”

KIA 김기태 감독이 25일 챔피언스필드 인터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5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고향팀서 첫 시즌을 맞는 김 감독은 과감한 야구를 언급했다.

김 감독은 “안전한 야구를 하다가는 이 길 수 없다. 우리가 흐름을 못 가져오거나 흐름을 뺏겨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실패는 감독의 책임이고, 욕먹는 게 내 일 중 하나다. 저는 경기는 감독의 책임이다”며 “과감하고 공격적인 야구로 올 시즌을 이겨 내겠다”고 밝혔다.

‘리빌딩’이라는 주요 과제가 주어졌고, 공·수·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길이 우측 견갑골 골절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등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김 감독은 144경기의 긴 싸움을 위한 준비가 잘 이뤄졌다고 지난 겨울을 평가했다.

김 감독은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 등을 하면서 희망은 봤다.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봤다. 자기 것을 버리고 팀과 나를 위한 마음이 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다. 80~90%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부분에서 희망적이다”며 “신중길이 빠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야수 전력을 잘 합해서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그 선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했고, 45명의 가동인원으로 전체시즌 전력을 배분하는 것도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어떤 선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엔트리는 바뀔 수도 있다. 자만하지 않고 시즌을 잘 치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어떤 선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엔트리는 바뀔 수도 있다. 자만하지 않고 시즌을 잘 치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중길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투수진의 가세는 활력이 되고 있다. 오는 28일 김병현이 2군 연습경기에 등판하고, 4월1일에는 김진우의 2군 등판이 예정됐다.

김 감독은 “아직 김진우는 엔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2군 등판이 예정되어있다. 김병현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선발 자원이야. 중간을 하다가 선발로 돌리기에 어려운 만큼 선발을 하다가 중간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석민의 보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막전이나 윤석민의 자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 감독이 꼽는 KIA의 시즌 첫 시험무대는 개막 후 14경기다. LG와 홈에서 개막 2연전을 치르는 KIA는 원정길에 나서 SK, kt를 상대한 뒤 안방에서 NC와 경기를 갖는다. 그리고 다시 주말 대구 원정에 나서 삼성을 만난다.

김 감독은 “삼성전까지 14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에이스가 세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팀의 자신감 분위기 등을 좌우하게 된다. 상위팀인 엘지도 있고, SK도 좋은 평가를 받는 팀이다. 삼성도 최강팀으로 테스트를 받는 무대다”고 초반 싸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년 뒤 ‘막강 KIA’를 향하여”

TEAM 2020 비전 선포...성장동력 창출 등 4가지 과제 발표

KIA 타이거즈가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TEAM 202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중장기 발전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KIA는 이날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구단’이라는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및 실행계획이 담긴 ‘TEAM 2020’을 선포했다.

“TEAM 2020”은 2020년까지 ▲Tomorrow(미래 성장 동력 창출) ▲Excellence(고객 행복 구현) ▲Ability(최고의 경기력 실현) ▲Management(구단 경영 능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Tomorrow”는 전략적인 인재양성 및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구단의 미래를 담고 있다.

“Excellence”는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한 행복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챔피언스 필드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디자인하고 KIA 타이거즈 문화를 창출해 지역민과

호흡하겠다는 것이다.

“Ability”는 최고의 경기력을 통해 팬들의 열원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 프로야구를 선도하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Management’는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과 혁신으로 구단 경영 능력을 극대화하고, 성장 모델을 구축해 프로야구의 미래를 열어나간다는 뜻이다.

KIA는 이와 함께 비전 슬로건 ‘Different Beats, One Heart’를 선포했다. 각기 다른 성향의 ‘강도와 울림(Beat)’을 가진 팬과 선수, 프런트, 구장 콘텐츠가 타이어거즈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열원(Heart)을 갖는다는 의미다. ‘하나의 심장(Heart·야구라는 본질적 요소)’을 통해 다양한 ‘감동과 울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또 ‘KIA 123+ by 2020’이라는 구단의 중장기 목표를 담은 서브 슬로건도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100만 관중 돌

파 ▲20% 이상의 구단 가치 상승 ▲3번 이상 포스트시즌 진출 ▲문화 통한 야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구성원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김여울기자 wool@

스카이스포츠·SPOTV

프로야구 중계사 확정

스카이스포츠와 SPOTV가 2015 타이 어뱅크 KBO리그 경기를 중계한다.

KBO는 25일 “올시즌 경기를 중계할 TV 방송사를 모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TV중계방송사인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플러스, SBS 스포츠에 스카이스포츠와 SPOTV가 가세했다. 스카이스포츠와 SPOTV가 중계사로 확정되면서 프로야구 1군 경기를 모두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SPOTV는 SPOTV+ 채널에서 야구 중계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휴~”

어깨 검진 이상 소견 없어...2주간 휴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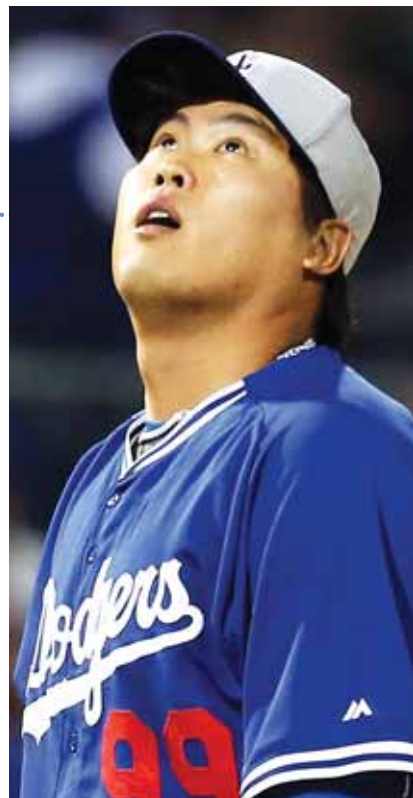
왼쪽 어깨 통증을 느낀 류현진(28)의 몸 상태가 비교적 좋으며, 어깨에 구조적 부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팀 관계자는 류현진에 대한 검진을 진행한 뒤 이 같이 밝혔다 CBS스포츠닷컴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류현진은 전날 LA에서 다저스팀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와 만나 검사를 받았다. MRI 검진 결과, 지난 2012년 다저스 입단 당시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지난 18일 시범경기 캐터스 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전 등판 하루 뒤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 소염주사 치료를 받았다. 23일 캐치볼을 시작했으나 30여개를 던진 뒤 다시 통증을 느꼈고 24일 LA로 돌아와 검진을 받았다.

류현진은 향후 2~3주간 휴식이 필요하며,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 후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저스 선발 진용은 돈 매튜리 감독의 구상대로 정규 시즌 개막 초반에는 4인 선발로 유지하다 임시선발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꾸러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어휴~”

강정호, 무안타에 수비실책...시범경기 5경기째 침묵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한국인 내야수 강정호(28)의 타격이 시범경기에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강정호는 25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범경기에서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두 차례 삼진으로 돌아선 등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강정호는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이후 5경기째 시범경기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시범경기 타율은 0.111까지 떨어졌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데뷔전에서 홈런을 기록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2루타

를 때리는 등 뜨겁게 타올랐던 강정호의 방망이는 첫 두 경기가 끝난 이후 9경기에서 23타수 1안타로 차갑게 식어 있다.

강정호는 수비에서도 한 차례 실수를 했다. 0-1로 뒤진 4회초 무사 1, 2루에서 크리스 데이비스의 중전 안타가 나온 직후 포구 실책을 저질러 타자 주자를 2루까지 진출시켜줬다. 그는 시범경기서 처음으로 9이닝을 모두 소화한 것에 만족하고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피츠버그는 볼티모어에 2-9로 크게 졌다. /연합뉴스

